

삼성SDI,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등록 2015.04.20 14:46:31 | 수정 2016.12.28 14:53:17

상하이 모터쇼에 맞춤형 배터리 셀, 모듈, 팩 전시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삼성SDI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공략한다.

삼성SDI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Auto Shanghai 2015'(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해 배터리 셀, 모듈, 팩, LVS와 자동차 내외장재용 소재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약 200㎡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한 삼성SDI는 먼저 37Ah-94Ah 등 다양한 배터리 셀을 선보인다. 또 각형 배터리의 장점을 극대화한 스탠다드 모듈도 전시한다. 각형 배터리는 셀 용량이 커져도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 차량 디자인 향상에 기여한다.

삼성SDI는 작고 강력한 배터리를 이용한 콤팩트 디자인 모듈과 팩을 선보인다. 배터리의 소형화는 연비가 핵심인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요소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납축전지를 대체하거나 보조해 연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LVS(저전압 배터리 시스템)도 함께 전시한다. LVS는 60V 이하의 배터리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준다.

상하이 모터쇼에는 케미칼사업부의 자동차 관련 소재부문도 함께 참여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도장 메탈릭 소재'다. 이 제품은 소재 자체에 금속성 외관을 구현, 별도의 도장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스크래치에 의한 색 벗겨짐이 적고 쉽게 변색되지 않는다.

지난해 미국 SPE 오토모티브 이노베이션 어워드(Automotive Innovation Award) 소재부문에서 금상을 받은바 있다.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중국은 기존의 IT 분야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먼저 제시하는 적극적인 영업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